

# 청정 · 활력 장수 발전 기대

### 소방안전타운 조성... 매년 고용 21명 · 20억 경제 효과 계남양돈단지 철거로 청정장수 이미지 제고

장수군이 전북도 소방안전타운 조성  
에 힘입어 청정하고 활력있는 지역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남양돈단지 철거에 따른 청정장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소방청사 조성  
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  
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장수군에서 지문을 거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안전타운의 시설투자  
기간인 2020년까지 50억원의 경제  
효과와 51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2021년부터는 시설운영에 따른 연  
3,000여명의 연수생 체류 등으로 인해  
매년 20억의 경제효과와 21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인근의 계남·장계지역 상권  
활성화 등 간접적인 부분을 포함한

결과이며, 이밖에 장수군의 브랜드 인  
지도 향상과 관광홍보 등 비계량적  
측면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전북도 소방안전타운 유치 성과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추진과정에서 성  
공요인을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의 시발점이 된 계남양돈  
단지 문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난항이 많아 20년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주민 고동민원을 대화와 소통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관유치로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한 군 행  
정의 노력이 주효했다. 실제로 군은  
민선6기 시작과 동시에 T/F팀을 구

성, 양돈단지 철거와 부지활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대다수 지자체가 대규모 양돈단지  
철거 후 단순 환경정화 또는 녹지공  
간 조성 수준에 그친 반면, 장수군은  
양돈단지 철거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부지 활용에 성공한 만큼 도·군 간  
상생협력의 전국적 우수사례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부지 인근의 APC 내 조성  
중인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와 연  
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눈여겨  
볼 수 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공약이 기관유  
치로 이어지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  
다"며 "앞으로도 군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군정을 이끄는 데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재정 신속 집행제, 폐지 · 수정 · 보완해야”

### 이해양 무주군의회 부의장 5분 발언... “이자 손실 · 부실 공사 등 피해 양산”

무주군의회는  
지난 15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심도 있는 심  
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해양 부의장  
은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  
정 신속(조기)집행 제도의 폐지 내지  
는 수정 · 보완해 시행할 것”을 정부  
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신속집행은 이명박 정



이해양 부의장

부인 2009년부터 경제 활성화를 미  
명하여 올해까지 시행해오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과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며 사례 위주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문제점으로 신속집행을  
시행한 지난 9년간 정부로부터 인센  
티브로 받은 교부금은 감소된 이자  
수입의 4.4%에 불과하여 수십억 원의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했고, 공사의  
상반기 집중 발주로 부실 공사와  
물품의 과다 구매를 유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급 효과도 미  
미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자치단체가 무리한 실적 경쟁

과 당초의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잘 달  
성했는가 보다 얼마나 예산을 신속히  
많이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  
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속집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 환류 과정 없이 매  
년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  
을 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문제점은 전국적  
인 현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신속  
집행제도의 피로상태가 어느 정도인  
지 살펴보고 내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수정 · 보  
완 후 분기별 적정집행으로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월 10일까지 납부해야

진안군은 2017년 27기분 환경개선부  
담금으로 4,948건 1억2,000만원을 부과  
하고 징수업무에 착수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  
에 대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최근 출  
시되는 차량(유료·5, 유료·6차량)을  
제한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  
차다.  
군은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폐

차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자동차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도난, 멸  
실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했다.  
특히 12개반 13명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반(T/F팀)을 편성·운영하여  
높은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재고를  
위해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주민자치회  
나 읍면 이장회의 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9월 15일  
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기간 내 관  
내 금융기관·전국 농협 및 우체국·  
인터넷지포(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농업진흥지역 추가정비 박차

### 이달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전 지역 전수조사 예정

진안군은 지난 15일 농업진흥식품부  
농업진흥지역 추가정비 계획이 확정  
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박차  
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실시한 농  
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지자체 담  
담자 간담회와 농지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추가정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존 정비유형과 함께 농업진흥지역  
에 증설한 중소기업자 소유의 공장부  
지와 진흥구역 내 저수지 부지 및 계  
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m  
이내 미경지정리지역 등이 새로 정비  
유형에 포함됐다.  
이번 정비는 9월말까지 지자체 조사  
완료 후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서  
10월말까지 지자체 조사결과 검토 및

면적을 확정된 이후 법적절차 이행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확정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그동안 정비대  
상임에도 누락된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신규 정비대상 지역에  
포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농업진흥  
지역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  
시할 방침이다.  
진안군은 현재 약 3,931ha의 농업진  
흥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과 올  
해 약 554ha 정비를 실시해 여건변화  
에 맞는 농업진흥지역 관리와 농지  
규제완화에 노력해 왔다.  
군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관  
리하기 부적합한 지역이 규제완화 해  
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작업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 운영 중

무주군은 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  
소해주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중소기업 옴부즈만)’를 운  
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읍(농공단지 업체 포함)  
소재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는 무주군  
은 이날 말일까지 살천과 안성(농공  
단지 업체 포함), 무풍, 적상, 부남면  
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  
고센터’에서는 △과도한 감독 권한  
행사,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 △해석이 모호한 규정, △불필  
요한 규제 등 기업에 과도하게 불변  
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규 등  
각종 규정과 기업 투자여건 및 기업  
환경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

으며 받은 의견 중 자체 처리가 가능  
한 것은 관련 부서들 간의 협업을 통  
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법령 개  
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부처에 건의해  
개선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김정미 규제개  
혁 담당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  
려움을 헤아리는 게 결국 지역에 활  
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간  
담회도 갖고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  
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접수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  
제신고센터(www.osmb.go.kr) 이용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  
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추석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진안군은 추석 연휴기간 전후인 9  
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대  
기·폐수 배출시설 등의 환경오염 취  
약시설을 점검하고 환경오염행위 사  
전예방 및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사항과 일치여부, 배출시  
설 및 방지운영 실태(고장방지 등),  
오염물질 누출여부, 측정기기 적정 설  
치·운영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  
록상태, 자가측정 이행여부 등이다.  
업종별로는 육류가공, 건강식품제조,  
재생플라스틱제조, 폐기물처리, 세차  
업, 김치제조, 발효식품 제조, 철골조

립, 레미콘, 막걸리제조, 섬유염색가  
공, 인삼식품제조, 세차업 등 다양하  
다.  
특히 대기분야 주요 점검사항은 배  
출시설허가증에 등재돼 있는 방지시  
설별 배출시설과 사업장 현장에 설치  
가능 중인 배출시설을 비교해 일치여  
부 확인하고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상  
에 기록돼 있는 방지시설의 용량과  
자가 측정 기록지에 명시된 풍량과  
비교확인 한다.  
진안군은 현재까지 관내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8개 업체에 대하여 패대  
료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무주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무주국립관리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에 산림 내 버섯·약초류 불  
법 채취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을 이달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관내 지자체  
(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와 합  
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버섯·약초류를 채취하는 행  
위로 단속 첫날, 진안군 특별사법경찰관  
과 합동 단속한 결과 버섯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김 모씨 등 2명이 이미 적발  
되었으며, 점주방검찰청으로 사건 송  
치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1  
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무심코  
한 행동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  
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고원 골프연습장 운영위 개최

진안군은 지난 15일 진안고원 골프연  
습장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5일 개  
장을 앞둔 골프연습장에 대해 관리운영  
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성된 골  
프연습장 운영위원회는 유근주 부군수  
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진안군 체육  
회와 관내 골프동호회 임원을 포함해 5  
명을 위촉,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는 위촉 사부터 3년간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방식(위탁, 사용자익허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진안고원 골프연습장은 연면적 927.42  
㎡, 18타석에 비거리 150m로 2층에 스크  
린 3면이 들어선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논개배 전국 탁구대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16일, 장계국민체육센  
터 체육관에서 ‘제17회 장수 의암 주 논  
개배 전국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장수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장수군탁구  
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17일까지  
이틀 동안 치러졌으며, 전국의 탁구 동  
호인 및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해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짧  
지 않은 시간 속에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  
아온 탁구가 동호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주고, 더 나아가 이번 전국  
탁구대회는 지역화합과 발전에도 커다  
란 활력소가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력 취득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취득	

